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제164호

2026년 발행 · 업계 조사 보고서 (실습용 가상 축약판, 원문 50페이지 콘셉트)

■ 요약

2026년 글로벌 공급망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해상 운임 지수는 연중 9% 반등했고, 기업들의 재고 전략은 적시(JIT)에서 상시 비축(JIC)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 핵심 지표

- 글로벌 해상 운임 지수: 2,330 (전년 대비 +9%)
- 반도체 리드타임: 14주 (정점 대비 -12주)
- 국내 제조업 재고율: 106.2%
- 니어쇼어링 신규 투자: 268억 달러

■ 부문별 동향

전자·반도체 부문은 AI 서버 수요로 4월 이후 가동률이 정점을 기록되었다. 자동차 부문은 전동화 전환에 따른 배터리 소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었고, 소비재 부문은 물류비 안정화로 마진이 개선되었다. 특히 매출 지표는 4월에 정점을 찍은 뒤 완만히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중소 제조업체의 68%는 공급처 이원화를 완료했다고 답했다.

■ 2027년 전망

관세 정책 변동성과 환율이 최대 리스크로 꼽힌다. 보고서는 기업들에 ① 공급처 삼원화 ② 90일 이상 핵심 부품 비축 ③ 물류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권고했다.

■ 조사 개요

조사 대상: 국내외 제조·유통 기업 412곳 / 조사 기간: 2026년 상반기 /
발행: 글로벌공급망연구소(가상)

(본 문서는 도서 실습용으로 제작한 가상 보고서입니다.)